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방송기술 발전좌담회(4)

중계방송과 음향



1992년 11/12월호, 통권 제27호

표지설명

사진은 식장산중계소로 이곳에는 KBS, MBC, EBS, CBS, AFBS 등의 방송시설이 집결되어 있고, 극동방송의 송신탑이 KBS, MBC 안테나와 나란히 서 있다. 극동방송의 회원사 가입을 기념하는 뜻에서 식장산중계소 전경을 표지 컷으로 실었다..

사진:정희광

글을 수록하며

1992년 11월 30일 발행된 통권 제27호, '방송과기술'

표지설명에 나오는 연합회 회원사의 면면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네요.

10년 후에는 연합회의 위상이 지금보다도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사는 방송기술발전을 위한 좌담회 4단으로 중계방송과 음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산 방송장비에 대한 생각과 장비도입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엿 보이네요.

또한 중계방송에 대한 어려움과 각 방송사의 현실을 꾸밈없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좋은 방송을 위한 고민의 방향은 동일할 것 같네요.

-편집자주-

연합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송기술발전 좌담회는 지난번 ‘Video 부문/컴퓨터 그래픽’에 이어 네 번째로 중계방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중계방송시의 음질의 문제, 중계차의 국산화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 현황에 대해서 KBS, MBC, TBS, BBS, PBC의 현업인들과 금양기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편집자 주 -

참석자 : 신현귀(MBC)

이희철 (KBS)

신창현 (BBS)

이용진 (TBS)

변홍규 (PBC)

김영원 (금양기전)

사회자 : 신현귀 (MBC)

사진 : 이경미 (연합회 기자)

정리 : 유정아 (연합회 리포터)

일시 : 1992년 11월 13일 15:00 - 17:00

장소 : 연합회 사무실



사회자 I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평상시 느끼는 중계방송 중계차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현업자 간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교환하여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사회를 본 MBC 신현귀 씨

우선 중계차의 국산화가 과연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철 I 국내 업체인 금양기전에서 만든 것이 3대입입니다만, 문제는 외국산에 비해 Air Bag, 카메라 보호 완충 작용 등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I 방송 중계차는 영업용과 같은 성질의 일을 하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4년마다 교환돼야 합니다. 차의 하중에 비해 장비가 과다하게 실려 있는 것이 문제인데, 특히 지방으로 중계를 나갈 때 장비를 적정량보다 더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경우는 특별히 힘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철 I MBC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KBS 입장은 좀 다릅니다.

최근 제주방송국, 전주 방송국에서 국산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업자들이 국산차가 여러 면에서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적은 투자



KBS 중계국 이희철 씨

로 많은 이익을 올리고자 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중계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상충된 이해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단적인 예로 국산차는 케이블이 좋지 않아 양질의 방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중도 예전엔 6~8대의 카메라를 장착했으나 요즘은 카메라 장비가 가벼워져 오히려 대수는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산차의 출력으로는 짐을 싣고 오르막길에서 규정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외관상 도색도 좋지 못해 Mark를 붙이고 다니는 중계차에 대한 Image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산은 여러 해 지나도 녹이 슬지 않는데 비해 국산은 1년만 지나도 녹이 슬고 문이 열려 장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원 I 국산 중계차라는 것이 KBS 같은 경우는 화물차종인 트럭을 개조한 것이고, MBC는 승합용인 고속버스를 개조한 것입니다. 승합차에 계속 화물을 실어 놓고 있는 실정이라 차량 회사에서 만든 본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양기전 김영원 씨

사회자 I MBC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서 최저가로 계약해 발생 하는 품질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충주, 마산, 춘천, 진주 등 지방에 1대씩 있는 실정인데 장비 가격에 맞추어 양질의 제품을 주문제작하 기도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창현 I 저희는 소형차를 금양기전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를 적정량보 다 많이 실어 사용한 탓에 처음에는 반 정도 나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프 링을 달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방송 신창현 씨

김영원 I 국산차는 크기에 비해 마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승합차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차라 더욱 그렇습니다. 중계차는 계속 운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적어 수명은 그다지 짧지 않습니다. 녹스는 것과 하중이 딸리는 것을 개선하면 외국산 중계차와 그다지 다 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자 I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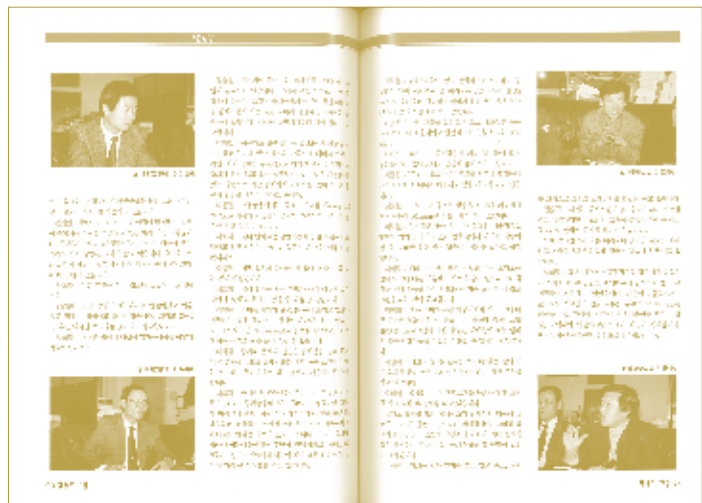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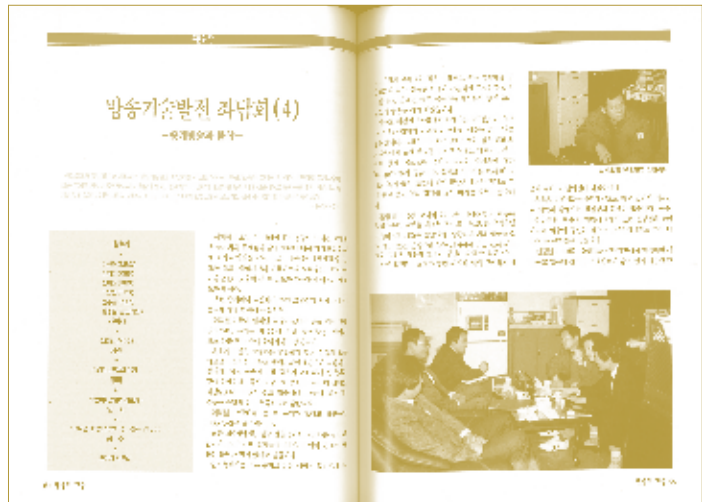
김영원 I 88년 올림픽 때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후면 외국산 못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I 국산화 정책에 대해서 업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원 I 중계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카메라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따로따로 수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너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산화를 저해하 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서서히 주변기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철 I 아무래도 방송 장비는 KB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국산 장비의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 장비를 부분적 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중계차에 마력수를 높여 더 큰 용량의 엔진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진 I 교통방송에서는 중계차 2대를 Grace 12인승으로 사용하 고 있는데 중량이 과중되기 쉬워 꼭 필요한 것만 싣고 다닙니다.



사회자 I 국내 업체로는 금양기전이 전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는데 A/S는 어떻게 잘 됩니까?

이용진 I 제작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 A/S가 좀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자 I 국내 업체는 자주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A/S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원 I 장비는 저희가 A/S를 못해 드리고 있으나 제작하는 것에 한 해서는 철저한 A/S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1년 동안은 무료로 받으 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희철 I 중계차 문제의 진단은 중계방송 질적 문제에 직결되는 것 으로 중계방송은 좋지 못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라 스튜디오에서 하

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자 I 중계방송 활동에는 주파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중계방송의 60~70%가 생방송인 까닭에 마이크의 문제, 서울 시내 대기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건물들이 높아진 까닭에 심지어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G대·5G대·6G대수신기는 후년에 반납하기로 되어있고, 5G대 수신기는 SBS에서 나누어 갖기 때문에 혼신이 잘 되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희철 I 남산·관악이 있고 전국적으로 케이블이 구성되어 있어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KBS는 특히 오디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오디오 담당자 17명이 오디오 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부문을 나누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자 I 요사는 중계방송 시 외부 업자들이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 오디오 덤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용진 I ‘우리는 교통가족’ 프로를 외부에 맡겼는데 자기 방송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방송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신창현 I 저희도 지방으로 방송을 나갈 때 외부에서 많이 하는데 Mixing은 방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I 업자들은 확산 장비 등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기기를 가지고 있어 방송국에서 나가는 사람이 잘 Control만 하면 좋은 방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I Video는 오디오보다 쉽습니다. 오디오는 경험과 그에 따른 기술적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므로 회의를 통해 리듬을 다시 만드는 등 자주 토의를 해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희철 I 좋은 장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겠습니다. 아울러 PD와 스텝들 간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외부 업체의 훌륭한 장비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창현 I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녹음이 없는 날에 매주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I KBS는 대형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전 토의를 하고 녹화 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풀제를 도입하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중계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송신소의 위치나 기타 중계방송 시 필요한 자료를 수집, 중계수첩을 연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용진 I 저희는 업무 일지를 쓰고 있고 주소, 위치를 그림으로 그리고, 스텝회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변홍규 I 저희는 중계스텝이 몇 명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서로 간의 호흡이 잘 맞아 타 방송 어느 곳보다도 완벽한 중계를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방송에 따른 어려움이 많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질 좋은 방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이용진 씨

사회자 I 짧은 시간 동안 포괄적으로 방송사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중계방송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인 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서로 간의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것이 방송기술인들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